

85. 낮에나 밤에나

작사 : 손양원, 계득현

1. 낮 - 에 나 밤 - 에 나 눈 물 머 금 고 내 - 주 님
 2. 고 적 하 고 밤 쓸 - 쓸 한 빈 들 판 에 서 회 - 미 한
 3. 먼 하 늘 에 이 - 상 한 구 들 만 떠 도 행 - 여 나
 4. 철 장 에 서 굽 주 리 며 매 맞 던 종 들 우 리 주 님

오 시 기 만 고 대 합 니 다 가 - 실 때 다 시 오 마
 등 - 불 만 고 박 히 어 놓 고 가 - 실 때 다 시 오 마
 내 - 주 님 오 시 는 가 해 서 오 실 리 주 님 다 고 시 대 하 며
 십 자 가 를 생 각 하 면 서 모 진 고 통 십 자 가 를

하 신 예 수 님 오 - 주 여 언 - 제 나 오 시 렷 니 까
 기 다 리 오 니 오 - 주 여 언 - 제 나 오 시 렷 니 까
 바 라 보 는 맘 오 - 주 여 언 - 제 나 오 시 렷 니 까
 지 고 참 음 도 오 - 주 여 언 - 제 나 오 시 렷 니 까

5. 환란뿔박 시 - 련은 나날이늘고 철장속에 깊이간헐 주의종들은
 오실주님 바라보고 참고참음도 오 - 주여 언 - 제나 오시렵니까
6. 오실주님 영 - 광을 바라보면서 쓰 - 리고 아픈고통 생각지않고
 살은말라 가 - 죽은 뼈에다붙고 쓸 - 쓸한 감옥에서 쓰러집니다
7. 산중이나 골방에나 빈들판에서 목자잃은 양과같이 쓸쓸한중에
 땅위에서 구원할이 전혀없으니 오 - 주여 언 - 제나 오시렵니까
8. 신부되는 주의성도 흰옷입고서 등불기름 준비하고 기다리오니
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예수님 오 - 주여 언 - 제나 오시렵니까
9. 천년세월 하루같이 기다린주님 나의영혼 당하는것 볼수없어서
 이시간도 기다리고 계신예수님 오 - 주여 언 - 제나 오시렵니까
10. 우리주님 자비하신 손을붙잡고 면 - 류관 받아들고 찬송부르네
 주님계신 그 - 곳에 가고싶어요 오 - 주여 언 - 제나 오시렵니까